

<국어 문법총 N제 정오사항(7.12)>

문항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1번	<p>1. <보기>의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국어 단어 중에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p> <p>○ 사잇소리 현상에 고려되는 조건</p> <p>㉑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㉒ 발음상 된소리되기가 나타날 것. ㉓ 사잇소리에 현상에 따른 의미의 분화가 나타날 것. ㉔ 앞뒤 음운 중 최소한 하나가 울림소리에 해당할 것.</p> <p>㉑~㉔ 각각의 쌍은 위 조건 ㉑~㉔ 중 일부 조건에서 차이가 나서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5%;">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단어</th> <th style="width: 45%;">사잇소리 현상이 없는 단어</th> </tr> </thead> <tbody> <tr> <td>㉑</td> <td>나무+가지[나무까지]</td> <td>나무+꾼[나무꾼]</td> </tr> <tr> <td>㉒</td> <td>초+불[초뿔]</td> <td>고래+기름[고래기름]</td> </tr> <tr> <td>㉓</td> <td>고기+배[고기배]</td> <td>고기+배[고기배]</td> </tr> <tr> <td>㉔</td> <td>잠+자리[잠자리]</td> <td>잠+자리[잠자리]</td> </tr> <tr> <td>㉕</td> <td>밤+길[밤길]</td> <td>꽃+길[꽃길]</td> </tr> </tbody> </table> </div> <p>① ㉑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나무+가지 [나무까지]'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혔군. ② ㉒은 ㉕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초+불[초뿔]'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혔군. ③ ㉓은 ㉓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고기+배[고기배]'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군. ④ ㉔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잠+자리[잠자리]'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군. ⑤ ㉕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밤+길[밤길]'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군.</p>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단어	사잇소리 현상이 없는 단어	㉑	나무+가지[나무까지]	나무+꾼[나무꾼]	㉒	초+불[초뿔]	고래+기름[고래기름]	㉓	고기+배[고기배]	고기+배[고기배]	㉔	잠+자리[잠자리]	잠+자리[잠자리]	㉕	밤+길[밤길]	꽃+길[꽃길]	<p>1. <보기>의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국어 단어 중에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p> <p>○ 사잇소리 현상에 고려되는 조건</p> <p>㉑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㉒ 발음상 된소리되기가 나타날 것. ㉓ 사잇소리에 현상에 따른 의미의 분화가 나타날 것. ㉔ 앞뒤 음운 중 최소한 하나가 울림소리에 해당할 것.</p> <p>㉑~㉔ 각각의 쌍은 위 조건 ㉑~㉔ 중 일부 조건에서 차이가 나서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5%;">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단어</th> <th style="width: 45%;">사잇소리 현상이 없는 단어</th> </tr> </thead> <tbody> <tr> <td>㉑</td> <td>잠+자리[잠자리]</td> <td>잠자리[잠자리]</td> </tr> <tr> <td>㉒</td> <td>나무+가지[나무까지]</td> <td>나무+꾼[나무꾼]</td> </tr> <tr> <td>㉓</td> <td>초+불[초뿔]</td> <td>고래+기름[고래기름]</td> </tr> <tr> <td>㉔</td> <td>고기+배[고기배]</td> <td>고기+배[고기배]</td> </tr> <tr> <td>㉕</td> <td>밤+길[밤길]</td> <td>꽃+길[꽃길]</td> </tr> </tbody> </table> </div> <p>① ㉑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잠+자리 [잠자리]'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군. ② ㉒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나무+가지 [나무까지]'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혔군. ③ ㉓은 ㉕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초+불[초뿔]'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군. ④ ㉔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고기+배[고기배]'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혔군. ⑤ ㉕은 ㉔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로, '밤+길[밤길]'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군.</p>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단어	사잇소리 현상이 없는 단어	㉑	잠+자리[잠자리]	잠자리[잠자리]	㉒	나무+가지[나무까지]	나무+꾼[나무꾼]	㉓	초+불[초뿔]	고래+기름[고래기름]	㉔	고기+배[고기배]	고기+배[고기배]	㉕	밤+길[밤길]	꽃+길[꽃길]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단어	사잇소리 현상이 없는 단어																																				
㉑	나무+가지[나무까지]	나무+꾼[나무꾼]																																				
㉒	초+불[초뿔]	고래+기름[고래기름]																																				
㉓	고기+배[고기배]	고기+배[고기배]																																				
㉔	잠+자리[잠자리]	잠+자리[잠자리]																																				
㉕	밤+길[밤길]	꽃+길[꽃길]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단어	사잇소리 현상이 없는 단어																																				
㉑	잠+자리[잠자리]	잠자리[잠자리]																																				
㉒	나무+가지[나무까지]	나무+꾼[나무꾼]																																				
㉓	초+불[초뿔]	고래+기름[고래기름]																																				
㉔	고기+배[고기배]	고기+배[고기배]																																				
㉕	밤+길[밤길]	꽃+길[꽃길]																																				
수정 이유	<p>해당 문항은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곤충의 이름을 뜻하는 '잠자리'가 오늘날 단일어로 분석되는바 기존의 '잠+자리'로 분석했던 단어 구조 분석을 '잠자리'로 수정합니다. 참고로 해당 문항에서 사용된 예시들은 모두 7차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예시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예시를 실은 점, 그에 따라 학습하는 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p>																																					
1번 정답과 해설	<p>[출제의도]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p> <p>㉑의 '고기+배[고기배]'는 '고기를 잡는 배'라는 뜻이고, '고기+배[고기배]'는 '고기의 배'라는 뜻이므로 ㉑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고기+배[고기배]'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p> <p>[오답풀이] ① ㉑의 '나무+가지[나무까지]'는 합성 명사이지만 '나무+꾼[나무</p>	<p>[출제의도]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p> <p>㉑의 '초+불[초뿔]'과 '고래+기름[고래기름]'은 ㉑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초+불[초뿔]'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p> <p>[오답풀이] ① ㉑의 '잠+자리[잠자리]'는 '잠을 자는 자리'를 뜻하는 합성어이고, '잠자리[잠자리]'는 곤충의 이름을 뜻하는 단일어이므로 ㉑에 의해 사잇소리</p>																																				

	<p>꾼]은 파생 명사이므로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나무+가지[나무까지]'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 ㉢의 '초+불[초뿔]'과 '고래+기름[고래기름]'은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초+불[초뿔]'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 ㉤의 '잠+자리[잠자리]'는 '잠을 자는 자리'를 뜻하는 합성어이고, '잠자리[잠자리]'는 곤충의 이름을 뜻하는 단일어이므로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잠+자리[잠자리]'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 '밤+길[밤길]'과 '꽃+길[꽃길]'은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밤+길[밤길]'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p>	<p>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잠+자리[잠자리]'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 ㉢의 '나무+가지[나무까지]'는 합성 명사이지만 '나무+꾼[나무꾼]'은 파생 명사이므로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나무+가지[나무까지]'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 ㉤의 '고기+배[고기뺨]'는 '고기를 잡는 배'라는 뜻이고, '고기+배[고기배]'는 '고기의 배'라는 뜻이므로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고기+배[고기뺨]'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 '밤+길[밤길]'과 '꽃+길[꽃길]'은 ㉠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 한편 '밤+길[밤길]'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p>
<p>24번 ㉡번 선지</p>	<p>㉠을 보니, 선어말 어미 '-었-'이 과거의 의미 외에도 미래의 일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쓰이는군.</p>	<p>㉠을 보니, 선어말 어미 '<u>-었-</u>과 '<u>-았-</u>'이 과거의 의미 외에도 미래의 일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쓰이는군.</p>
<p>21번 정답과 해설</p>	<p>정답 번호가 ④번으로 표시</p>	<p>정답 번호를 ③번으로 정정</p>
<p>24번 정답과 해설</p>	<p>정답 번호가 ①번으로 표시</p>	<p>정답 번호를 ④으로 정정</p>
<p>8번 해설</p>	<p>'ㄴ' 첨가 현상은 복합어에서 자음 받침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올 때 형태소 경계에서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을 보면 '학여울[항녀울]'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났지만 '육이오[유기오]'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 'ㄴ' 첨가 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p>	<p>'ㄴ' 첨가 현상은 복합어에서 자음 받침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올 때 형태소 경계에서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을 보면 '학여울[항녀울]'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났지만 '<u>육이오[*용니오]</u>'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난 발음이 비표준 발음인 것으로 보아, '<u>ㄴ'첨가 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u></p>

12번 해설	㉠ '알약'은 '알약→알낙('ㄴ' 첨가)→알락(비음화, 교체)'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 '놓는다'는 '놓는다→놓는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논는다(비음화, 교체)'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밥물'은 '밥물→밤물(비음화, 교체)'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모두 인접 음운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비음화, 유음화)이 있다.	㉠ '알약'은 '알약→알낙('ㄴ' 첨가)→알락(유음화, 교체)'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 '놓는다'는 '놓는다→놓는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논는다(비음화, 교체)'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밥물'은 '밥물→밤물(비음화, 교체)'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모두 인접 음운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비음화, 유음화)이 있다.
29번 해설	㉢ '깨끗+이'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 '막+애'는 각각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며, '막-'은 어근이고 '-애'는 접사이므로 제14항을 따르지 않는다.
33번 해설	'할뻔도 했구나'는 보조 용언 '듯하다'에 조사 '도'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할 뻔도 했구나'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할뻔도 했구나'는 보조 용언 '뻔하다'에 조사 '도'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할 뻔도 했구나'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